

작업치료 교육에 있어서 임상실습교육 현황 분석

이미자*, 김경미**, 이재신***, 이택영****, 강대혁****, 이경식*****, 유은영*****

*삼육재활병원 재활치료팀

**인제대학교 의생명공학대학 작업치료학과

***건양대학교 작업치료학과

****한서대학교 작업치료학과

*****삼성서울병원 작업치료실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작업치료학과

국문초록

목적 : 임상실습교육은 대학에서 배운 이론적 지식을 임상현장에서 적용하고, 응용하는 기술을 익히는 중요한 교육과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임상실습교육에 대한 국내 관련정보를 분석하여 임상실습교육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틀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 작업치료(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교)과 임상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실습기관을 대상으로 임상실습교육에 관한 관련 정보를 파악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 임상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총 24개 대학으로 한 학교당 평균 14.3개소의 실습기관에 임상실습교육을 위탁하고 있었다. 전체학교의 평균 실습시간은 15.1주, 664시간이었고, 실습 시기는 여름방학 14개교, 겨울방학 13개교, 1학기 5개교, 2학기 3개교 순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실습기관은 총 125개소로 조사되었고, 각 실습기관에서 년 중 임상실습교육을 실시한 학교는 평균 2.8개교였고, 학생은 평균 11.4명의 학생을 지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임상실습기관에 소속되어 임상실습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작업치료사는 총 359명이었고, 작업치료사의 경력은 3년 이하의 경력을 가진 치료사가 전체의 57.9%를 차지하고 있었다. 전체 작업치료 관련 기관과 실습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을 비교한 결과 임상실습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은 전체의 47.2%였고, 임상실습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작업치료사의 전체의 65.3%로 나타났다.

결론 : 국내의 효율적인 임상실습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객관적인 기준마련이 시급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실습기관의 인적, 물적 자원이 적절하게 분배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주제어 : 작업치료, 임상실습교육, 실습기관

본 논문은 한국 작업치료 인증위원회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짐

교신저자 : 이미자(otr32@freechal.com)

|| 접수일: 2004.7.20

|| 게재승인일: 2004.9.2

I. 서론

작업치료학문에 있어 임상실습교육은 대학에서 배운 이론적 지식을 실제 임상현장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통합하는 교육과정이다(AOTA, 1984; Dunn & Cada, 1998). 즉 임상실습 과정은 작업치료사로서 관련된 지식을 적용하여 임상 기술을 익히는 물론 작업치료사로서 필요한 자세 및 팀워크를 배우는 실질적인 교육 단계라고 할 수 있다(AOTA, 1984). 학생들은 임상실습교육을 통해 그동안 배운 지식을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관시켜 작업치료사로서의 자질을 시험하고, 작업치료 분야에 대한 적성 여부를 파악하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된다. 이때문에 임상실습교육은 졸업 후 진로를 선택하는데도 도움은 물론 작업치료에 대한 종합적인 안목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임상실습교육은 중요한 교과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작업치료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임상실습교육은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다(이미자, 2002; 장기연, 2002). 최근 몇 년 사이 작업치료 교육기관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와 함께 많은 실습기관도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는 충분한 임상실습기관의 존재 여부 및 학생들을 위탁교육시킬만한 자격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 등에 대한 매우 기초 정보조차도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임상실습교육 현황에 대한 관련정보를 분석하여 임상실습교육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임상실습교육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여 작업치료 임상실습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2004년 8월 현재 전국에 작업치료(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교)과 임상실습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실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2. 자료수집 절차 및 방법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2004년 7월 5일부터 8월 20일 사이에 대학(교)의 경우 해당학과에 공문과 조사지를 전자메일로 보내 협조를 구했고, 회수 방법은 FAX와 전자메일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불충분한 자료는 전화 면담을 실시하였다. 실습기관에 대한 조사는 전화와 전자메일을 이용하여 파악하였다.

대학을 통해 조사한 내용은 실습기관, 실습시기, 실습대상 학생수, 실습시간이었고, 대학에서 파악한 실습기관을 토대로 실습기관의 작업치료사수, 치료실수, 작업치료사의 경력, 석사학위 소지자수 등을 조사하였다.

회수율은 전국 26개 대학 모두에서 회신되어 100%였으며, 이 중 임상실습교육을 시작하지 않은 2개교를 제외한 24개 대학(교)과 현재 작업치료사 임상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125개소의 실습기관 모두의 자료를 SPSS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학교 현황

임상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전국에 작업치료(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총 26개 학교 중 아직 임상실습교육을 시작하지 않은 2개교를 제외

표 1. 학교별 실습기관수

(단위: 개교)

	학교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전 체	24	14.3	9.0	3	41
3년제	18	13.6	9.1	3	41
4년제	6	16.5	8.9	3	27

한 총 24개 학교로 3년제가 18개교, 4년제가 6개교이다. 한 학교에서 학생들을 배치한 실습기관수는 학생 정원이나 실습기간에 따른 차이가 있어 3개소에서 41개소까지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한 학교당 평균 14.3개소의 실습기관에 임상실습교육을 위탁하였다(표 1).

실습시간은 4년제 학교의 경우 주당 시간을 44시간으로 계산할 경우 최소 16주, 704시간에서 24주, 1,056시간으로 평균 21.3주, 937시간이었으며, 3년제 학교의 경우 대부분인 15개교가 8주, 352시간이었고, 3개교가 8주 이상으로 나타나 3년제 평균 실습시간은 8.8주, 387시간으로 나타났다. 전체학교의 평균 실습시간은 664시간(15.1주)으로 세계작업치료사연맹의 권장 실습시간인 1,000시간에 못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2).

실습시기를 보면, 3년제의 경우 대부분의 학교가 2학년 겨울방학(7개교)과 3학년 여름방학(7개교)을 이용하였고, 1개교만이 3학년1학기에 실습을 하고 있었다. 16주를 하는 학교의 경우 2학년 겨울방학과 3학년 1학기 때 실습이 이루어졌고, 또한 4주씩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나누어서 실시한 학교는 2

개교로 조사되었다. 4년제의 경우 16주 이상의 실습기간 때문에 방학기간과 학기에 걸쳐서 실습이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3학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및 4학년 1학기에 실습을 보낸 학교가 1개교, 3학년 겨울방학 및 4학년 여름방학과 2학기가 1개교, 3학년 겨울방학과 4학년 1학기가 1개교, 3학년 1학기과 여름방학을 이용한 학교는 1개교였고, 4학년 여름방학과 2학기를 이용하여 실습을 실시한 학교는 2개교로 나타났다. 각각의 기간 중 실습 학교수를 살펴보면 방학기간 중에는 겨울방학이 13개교, 여름방학이 14개교가 실습을 하여 집중적으로 몰려 있었고, 학기 중에는 1학기가 5개교, 2학기가 3개교로 방학 중보다는 훨씬 적은 수의 학교가 실습을 받았다. 이로써 작업치료사 임상실습교육은 학기 중보다는 방학기간 중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3).

한 학생당 임상실습교육을 받은 실습기관수는 1개소에서 4개소로 조사되었다. 주로 4주와 8주 단위로 실습을 받아 실습기간에 따라 실습기관의 수가 정해지고 있었는데 8주가 실습기간인 학교의 학생은 4주씩 2개소의 실습기관에서 실습을 하게

표 2. 학교별 실습기간

(단위: 개교)

	학교수	평균주수	실습주수				
			8주	10주	12주	16주	24주
전 체	24	15.1	15	1	1	4	3
3년제	18	8.8	15	1	1	1	0
4년제	6	21.3	0	0	0	2	4

표 3. 학교별 실습시기

(단위: 개교)

	학교수	실습시기			
		겨울방학 (12~2월)	1학기 (3~6월)	여름방학 (7~8월)	2학기 (9~11월)
전 체	24	13	5	14	3
3년제	7	<----->			
	7	<----->			
	1	<----->			
	1	<----->	<----->		
	2	<----->		<----->	
4년제	1	<----->	<----->	<----->	
	1	<----->		<----->	<----->
	1	<----->	<----->		
	1		<----->	<----->	
	2			<----->	<----->

되고(주로 3년제 학교), 16주의 경우에는 4주씩 하는 학교의 학생은 4개 기관, 8주씩 하는 학교의 학생은 2개소의 기관에서 실습을 하였다. 실습기간이 24주인 학교의 학생의 경우 8주씩 3개소의 기관에서 실습을 한 학교도 있었다. 또한 일부 실습기관에 따라 특별히 8주의 실습기간을 요구하는 기관도 있어 이 실습기관에서 실습할 경우 8주가 실습기간인 3년제 학교의 학생은 1개소의 기관에서만 실습을 한 사례도 조사되었다.

2. 실습기관 현황

1) 지역별, 기관별 분포현황

2004년 8월 현재 임상실습교육을 하고 있는 실습기관은 총 125개소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32개소(25.6%), 경상 30개소(24.0%), 경기 23개소(18.4%) 순으로 많아 이 세 지역의 실습기관수가 85개소로 전체 실습기관의 68%를 차지하고 있다.

실습기관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종합병원, 병원이 91개소로 전체 실습기관의 72.8%로 작업치료사 임상실습교육의 대부분이 의료기관인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병원의 대부분은 재활의학과 소속의 작업치료실이었고, 정신과 영역은 일부에 국한되어 이 중 국립정신병원이 3개소, 종합병원 정신과에 3개소, 정신과 의원 1개소로 조사되었고, 한방병원도 2개소가 있었다. 병원 다음으로 많은 실습기관은 복지관으로 12개소(9.6%)였고, 그 외에는 직업재활 분야나 사설아동치료기관, 어린이집 등이 소수 포함되어 있었다(표 4).

2) 실습기관별 작업치료실 보유현황

실습기관에 따라 작업치료실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규모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나 직업전문학교 등 기관의 특성상 작업치료실이 없는 곳도 있었고, 작업치료실이 1개소만 개설된 기관이 67개소(55.6%)로 가장 많았으며, 2

표 4. 실습기관의 지역별, 기관별 분포 현황

(단위: 개소, %)

	서울	경기	충청	강원	경상	전라	제주	합계
종합병원, 병원	23 (18.4)	20 (16.0)	11 (8.8)	5 (4.0)	19 (15.2)	12 (9.6)	1 (0.8)	91 (72.8)
의원	1 (0.8)				3 (2.4)		1 (0.8)	5 (4.0)
복지관	5 (4.0)		1 (0.8)	1 (0.8)	4 (3.2)	1 (0.8)		12 (9.6)
사설아동치료기관	3 (2.4)	2 (1.6)	1 (0.8)					6 (4.8)
장애인고용촉진공단		1 (0.8)						1 (0.8)
직업전문학교			1 (0.8)		2 (1.6)			3 (2.4)
사회복지기관			1 (0.8)	1 (0.8)	1 (0.8)	2 (1.6)		5 (4.0)
어린이집				1 (0.8)	1 (0.8)			2 (1.6)
합 계	32 (25.6)	23 (18.4)	15 (12.0)	8 (6.4)	30 (24.0)	15 (12.0)	2 (1.6)	125 (100)

개의 작업치료실이 있는 기관도 30개소(24%)를 차지해 대부분의 실습기관인 79.8%가 1~2개의 치료실을 가지고 있어 전체 실습기관의 평균 치료실 수는 1.7개소로 조사되었다(표 5).

평균 2.8개교였고, 학생수는 최소 1명에서 83명까지 다양하게 나타나 한 실습기관 당 평균 11.4명의 임상실습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6).

4) 작업치료사 현황

3) 실습기관별 학교수, 학생수
한 곳의 실습기관에서 년 중 임상실습교육을 실시한 학교수는 최소 1개교에서 최대 15개교를 받아

125개소의 실습기관에 소속된 작업치료사는 총 359명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115명(32.1%)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

표 5. 실습기관별 작업치료실 보유현황

(단위: 개소, %)

	전체	평균	치료실수							
			0	1	2	3	4	5	6	7
기관수	125 (100)	1.7	5 (4.0)	69 (55.2)	30 (24.0)	8 (6.4)	8 (6.4)	2 (1.6)	2 (1.6)	1 (0.8)

표 6. 실습기관별 학교수 및 학생수

(단위: 개교, 명)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실습학교수	2.8	2.3	1	15
실습학생수	11.4	12.0	1	83

로는 경기 102명(28.4%), 경상 57명(15.9%), 전라 29명(8.1%) 순으로 조사되었고, 제주도 지역에도 7명(1.9%)의 작업치료사가 실습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작업치료사의 경력을 살펴본 결과 2~3년 사이와 1년 이하가 각각 116명(32.3%), 92명(25.6%)으로 나타났고, 3년 이하의 경력자가 전체 임상교육 치료사의 57.9%를 차지하였다. 또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치료사는 52명(14.5%)이었고, 다음으로 6~9년차가 51명(14.2%), 4~5년차

가 48명(13.4%)순으로 조사되었다(표 7).

표 7에서는 임상실습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에 속해 있는 작업치료사에 관한 정보이다. 이들 치료사 중 실습의 책임을 맡고 있는 최고 경력의 치료사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자료를 분석한 결과 125개소의 전체 실습기관 중 작업치료사가 1명도 없는 곳도 2개소가 있었으며, 10년 이상의 작업치료 경력을 가진 치료사가 1명 이상 있는 기관이 34개소(27.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6~9년차 작업치료사가 있는 실습기관이 28개소(22.8%)로

표 7. 실습기관의 작업치료사 경력 현황

(단위: 명, %)

	1년 이하	2~3년	4~5년	6~9년	10년 이상	합계
서울	16	34	16	25	24	115 (32.1)
경기	24	35	16	14	13	102 (28.4)
충청	13	12	3	4	4	36 (10.0)
강원	3	4	1	1	4	13 (3.6)
경상	23	17	8	5	3	57 (15.9)
전라	11	9	3	2	4	29 (8.1)
제주	2	4	1	0	0	7 (1.9)
합계	92 (25.6)	116 (32.3)	48 (13.4)	51 (14.2)	52 (14.5)	359 (100)

표 8. 실습기관별 치료사의 최고경력 보유현황

(단위: 개소, %)

경 력	1년 이하	2~3년	4~5년	6~9년	10년 이상	합계
기관수	17 (13.8)	26 (21.1)	18 (14.6)	28 (22.8)	34 (27.7)	123* (100)

*전체 실습기관 125개소 중 작업치료사 없는 곳 : 2개소

다음 순위였으며, 2~3년차 26개소(21.1%), 4~5년차 18개소(14.6%)순이었다. 1년 이하 경력의 작업치료사만 있는 실습기관도 17개소(13.8%)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8).

또한 이번 조사에서 실습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작업치료사의 석사학위 소지자수를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30개 기관에서 39명의 작업치료사가 석사학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실습기관의 전체 작업치료사 359명의 10.9%, 전체기관수인 125개소의 24%에 해당된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1개소의 기관, 18명으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고, 그 다음으로 경기 지역이 7개소, 9명이 석사학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9).

5) 실습기관의 지역별 치료실수, 치료사수, 실습학생수 비교

실습기관별 치료실수, 치료사수, 실습 학생수를 지역별로 비교해 본 결과 치료실수의 경우 서울과 경기지역이 평균 2개 이상의 치료실을 보유하고 있어 타 지역에 비해 규모가 큰 실습기관이 치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평균 치료사수의 경우 경기 지역이 4.5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경상지역이 1.6명

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체 실습기관의 평균 치료사수는 2.9명으로 조사되었다. 실습학생수에 있어서는 서울지역에 467명이 실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많은 수의 학생이 실습을 하고 있었지만, 실습기관 당 학생수의 경우는 경기지역이 가장 높아 평균 19.5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실습기관에서 임상실습교육을 실시한 총 학생수는 1,422명으로 치료실 당 평균 6.6명, 치료사 1인당 평균 4명의 임상실습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10).

6) 전체 작업치료기관과 실습기관 비교

현재 실습기관이 국내 작업치료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전체기관에 대한 비율을 알아보기 위해 각 지회 명부를 중심으로 전체 작업치료기관과 작업치료사 수를 파악해 보았다. 전체기관 현황을 표 11을 통해 본 결과 전체 265개소의 기관에 550명의 작업치료사가 소속되어 있었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기관의 경우 경상지역이 75개소로 가장 많았고, 서울 65개소, 경기 59개소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기관에 소속되는 작업치료사수의 경우 기관수와는 차이가 있어 서울 164명, 경기 155명, 경

표 9. 석사학위 소지현황

(단위: 개소, 명, %)

	전체	서울	경기	충청	강원	경상	전라	제주	합계
기관수	125 (100)	11 (8.8)	7 (5.6)	4 (3.2)	2 (1.6)	4 (3.2)	2 (1.6)	0	30 (24)
소지자수	359 (100)	18 (5.0)	9 (2.5)	4 (1.1)	2 (0.6)	4 (1.1)	2 (0.6)	0	39 (10.9)

표 10. 실습기관별 치료실수, 치료사수, 실습학생수 비교

(단위: 개소, 명)

	기관수	치료실		치료사		실습학생	
		치료실수	평균 치료실수	치료사수	평균 치료사수	학생수*	평균 학생수
서울	32	72	2.3	115	3.6	467	14.6
경기	23	45	2.0	102	4.5	448	19.5
충청	15	25	1.7	36	2.4	168	11.2
강원	8	15	1.9	13	1.6	45	5.6
경상	30	35	1.2	57	1.9	188	6.3
전라	15	20	1.3	29	2.0	98	6.5
제주	2	2	1.0	7	3.5	8	4.0
전체	125	214	1.7	359	2.9	1,422	11.4

*학생수의 경우 같은 학생이 1~4개의 실습기관에서 실습을 하기 때문에 실습기관수만큼 중복된 수치임

표 11. 전체 작업치료 관련기관 현황

(단위: 개소, 명)

	서울	경기	충청	강원	경상	전라	제주	합계
종합병원, 병원	35 (109)	29 (104)	12 (27)	5 (8)	39 (69)	17 (28)	3 (5)	140 (350)
의원	4 (7)	1 (2)			5 (7)		2 (5)	12 (21)
복지관	12 (28)	16 (25)	3 (4)	4 (7)	9 (12)	4 (5)		48 (81)
사설아동치료기관	5 (9)	4 (12)	3 (4)		4 (6)			17 (31)
장애인고용촉진공단	2 (3)	1 (4)			1 (1)	1 (1)		5 (9)
직업전문학교		1 (1)	1 (2)		2 (2)	1 (1)		5 (6)
어린이집	5 (5)	4 (4)	2 (3)	1 (2)	14 (15)	1 (5)		27 (34)
기타기관	2 (3)	3 (3)	2 (6)	1 (2)	1 (1)	1 (1)	2 (2)	11 (18)
합 계	65 (164)	59 (155)	23 (46)	11 (19)	75 (113)	25 (41)	7 (12)	265 (550)

*()는 작업치료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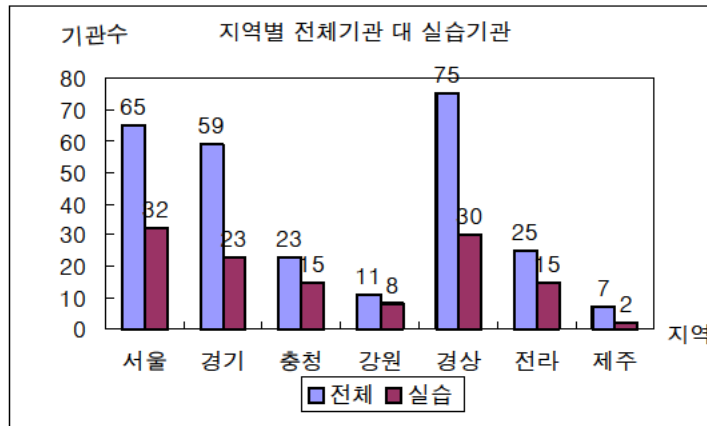


그림 1. 지역별 전체기관 대 실습기관 현황

상 113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들 치료사들의 기관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의료기관에 371명(67.5%), 복지관 81명(14.7%), 어린이집 34명(6.2%) 순으로 나타났다. 이 전체기관에 대한 자료를 근거로 전체기관과 실습기관을 비교해 보면 작업치료가 행해지고 있는 전체기관(265개소) 중 작업치료 임상실습교육을 하고 있는 실습기관(125개소)의 비율은 47.2%였고, 현재 활동하고 있는 전체

작업치료사(550명) 중 임상실습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작업치료사(359명)의 비율은 65.3%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1에서 나타난 지역별 전체 작업치료 기관에 대한 실습기관 비율을 살펴보면 강원지역이 전체기관 11개소 중 8개소가 실습교육을 하고 있어 72.7%를 차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충청 65.2%(전체기관 23개소 중 15개소가 실습기관),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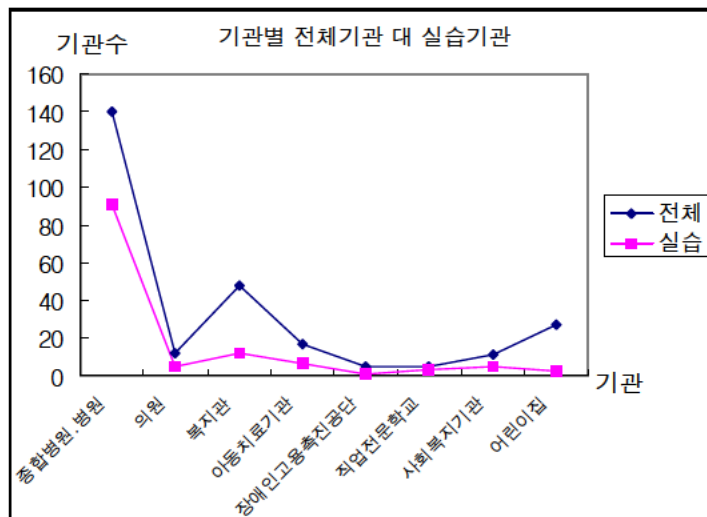


그림 2. 실습기관 특성별 전체 기관수 대 임상실습 담당 현황

을 49.2%(전체기관 65개소 중 32개소가 실습기관) 순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기관별로 전체 작업치료 기관에 대한 실습 기관 비율을 살펴보면 가장 높은 영역은 종합 병원, 병원으로 전체 140개소의 병원 중 91개소의 병원에서 임상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65%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기관 대 실습기관 비율이 가장 낮은 기관은 어린이집으로 전체 27개소의 어린이 집 중 임상실습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은 2개소로 7.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2).

IV. 고 찰

임상실습교육은 대학에서 배운 지식과 이론을 작업치료 현장에서 적용하고 활용하는 기회를 통하여 작업치료사로서의 기본적 자질을 함양하고 실제적 지식과 기술을 체험하는 과정으로 작업치료사로서의 이해를 넓히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임상실습교육은 단순히 학점을 이수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치료사가 되기 위한 준비과정의 의미를 갖는다.

현재 우리나라 작업치료 임상실습교육 현황을 살펴본 결과 작업치료를 교육하고 있는 모든 학교와 많은 수의 실습기관이 임상실습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작업치료 교육기관의 증가는 작업치료 인력이나 시설의 양적 팽창을 가져왔다. 2003년 5월 필자는 임상실습교육을 실시한 학교수와 실습기관수를 조사했는데, 9개 대학에서 70개소의 실습기관에 임상실습교육을 위탁한 것으로 파악되었다(인용문헌 첨부). 이번 조사에서는 24개 대학과 125개소의 실습기관에서 임상실습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남짓한 사이 학교는 3배, 실습기관은 2배 가까이 양적 증가를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대학 측이나 임상실습교육을 위탁받은 실습기관 모두 사전의 충분한 준비 없이 임상실습교육에 관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 측은 실습기관의 확보에 급급한 실정이다 보니 임상실습교육의 질은 소홀히 취급하고 있다. 대부분의 실습기관 역시 실습교육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지원체제를 갖추지 못한 채 실습기관의 책임자의 판단하에 학생들의 임상실습교육을 맡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임상실습교육 체제하에서는 대학은 학사일정에 따라 임상실습교육을 하나의 학과목 수준으로 생각하여 실습기관에 위탁하고 있으며, 실습기관에 대한 총체적인 정보 부족과 협력체계의 부재로 인해 보다 좋은 조건을 가진 실습기관의 확보는 물론 효율적인 실습 지도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실제 대학에서는 실습일정, 실습기관 배정 등 구조적인 요소만 계획하고 있을 뿐 실습 프로그램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과 방침에 대해서는 어떤 표준화된 기준도 제시하고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임상실습교육의 내용은 전적으로 실습기관의 운영계획이나 지도방침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게다가 각 실습기관은 실습기관대로 실습 프로그램에 대한 상호교류나 실습기관의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각 기관의 실습 프로그램이나 실습 지도를 맡은 작업치료사의 자질에 따라 임상실습교육의 질적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 충실한 임상실습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각 실습기관을 이를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들에 대한 평가도 전적으로 실습지도 작업치료사에 의해 상대평가로 이루어지고 있어 실습기관 간 공정성이나 형평성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학생은 학생대로 실습기관의 선택에 있어 극히 일부 학생들은 본인이 원하는 실습기관에 배정되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본인의 희망과는 별개로 선택의 여지없이 학교에

서 배정해준 실습기관의 여건에 따라 실습교육을 받고 있다. 여건이 좋은 실습기관이 배정된 운 좋은 학생의 경우는 임상실습교육을 통해 많은 것을 얻을 기회를 갖지만, 그렇지 못한 상당수의 학생은 부실한 실습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교육이 수요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세계적 추세이거니와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학도 교과과정, 실습기자재 확보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작업치료 교육에 있어 임상실습교육 여건은 열악한 실정이지만 앞으로 수요자인 학생들이 선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V. 결 론

이 연구는 2004년 8월 현재 우리나라 작업치료 교육에 있어 임상실습교육 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앞으로 체계적인 작업치료 임상실습교육 과정의 틀을 마련하는 기초 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되었다.

임상실습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24개 대학(교)과 125개소의 실습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임상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총 24개 대학(교)으로 3년제가 18개교, 4년제가 6개교로 나타났으며, 한 학교 당 평균 14.3개소의 실습기관에 임상실습교육을 위탁하였다.
2. 평균 실습시간은 3년제의 경우 8.8주, 387시간이었고, 4년제의 경우 21.3주, 937시간으로 조사되어 전체학교의 평균 실습시간은 15.1주, 664시간이었다.
3. 실습시기의 경우 여름방학 14개교, 겨울방학 13개교, 1학기 5개교, 2학기 3개교 순으로 나타나 작업치료 임상실습교육은 방학기간 중에 치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 임상실습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실습기관은

총 125개소로 조사되었다. 기관별로는 종합병원, 병원의 의료기관에 전체 실습기관의 72.8%를 차지하고 있었다.

5. 한 곳의 실습기관에서 년 중 임상실습교육을 실시한 학교는 평균 2.8개교였고, 학생은 평균 11.4명에게 임상실습교육을 하고 있었다.
6. 실습기관에 소속되어 임상실습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작업치료사는 총 359명이었다. 전체 치료사의 경력은 3년 이하의 경력을 가진 치료사가 57.9%를 차지하고 있었고, 기관별 최고 경력자를 살펴본 결과 6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치료사가 1명 이상 있는 기관은 50.5%로 나타났다.
7. 현재 작업치료사가 활동하고 있는 전체기관과 실습기관을 비교한 결과 전체기관 대 실습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47.2%였고, 전체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작업치료사 대 실습기관에서 임상실습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작업치료사 비율은 65.3%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나라 작업치료 교육에 있어서 임상실습교육의 현황을 파악한 것으로 실습기관의 분포현황, 실습시간, 실습시기, 대상 학생수, 실습지도 치료사의 경력 등 가장 기본적인 정보에 국한해서 조사 분석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의 작업치료 임상실습교육 현실의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조사와 분석을 할 수 없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를 기초로 하여 작업치료 임상실습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실습지도 치료사나 실습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작업치료 임상실습교육의 문제점과 대안, 임상실습교육의 효과 등에 관한 여러 후속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 임상실습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실습 프로그램, 평가방법 등의 객관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하고, 실습기관의 인적, 물적 시스템의 확보

를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의한 평가체제를 도입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김경미, 이미자, 이재신, 이택영, 강대혁, 이경식, 유은영. (2003). 작업치료 교육기관 인증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작업치료사들의 인식도 조사. *대한작업치료학회지*, 11(2), 125-133.
- 이미자. (2002). 우리나라 작업치료사 인력양성 실태 및 문제점. *대한작업치료학회지*, 10(2), 181-186.
- 장기연. (2002). 작업치료교육프로그램 인증평가제도 연구(미국제도를 중심으로). *대한작업치료학회지*, 10(2), 143-152.
- American Occupational Therapy Association. (1984). *Guider to fieldwork education*. Bethesda: American Occupational Therapy Association, Inc.
- Dunn, W., & Cada, E. (1998). The national occupational therapy practice analysis: finding and implications for competence.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52, 721-728.

Abstract

The Current Fieldwork Affiliation Status of the Occupational Therapy Education Programs in Korea

Lee, Mi-Ja*, M.P.A., O.T., Kim, Kyeong-Mi**, Ph.D., O.T., Lee, Jae-Shin***, M.P.H., O.T.

Lee, Teak-Young****, M.P.E., O.T., Kang, Dae-Hyuk****, M.S., O.T.R.,

Lee, Kyoung-Sik*****, M.P.H., O.T., Yoo, Eun-Young*****, Ph.D., O.T.,

*Dept. of Rehabilitation Therapy, Sam Yook Rehabilitation Hospital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College of Biomedical Science and Engineering, Inje University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Konyang University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Hanseo University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Samsung Medical Center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College of Health Science, Yonsei University

Objective :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urrent fieldwork affiliation status of the occupational therapy programs in Korea in order to promote the quality of occupational therapy education by providing a guideline for the effective and systematic clinical fieldwork programs.

Methods : Occupational therapy fieldwork information was obtained from 24 occupational therapy education programs and 125 occupational therapy clinics nationwide through e-mail questionnaire and telephone interview.

Results : Each occupational therapy education program was affiliated with average of 14.3 clinics. The average fieldwork hours were 664 hours. 14 programs set up the fieldwork program during Summer vacation and 13 programs scheduled it during Winter vacation. 5 programs sent students to the fieldwork places during the Spring semester and the students from 3 programs went to the fieldwork places during the Fall semester. Each fieldwork clinic was affiliated with average of 2.8 occupational therapy education programs and took average of 11.4 students per year. 359 occupational therapists were supervising the students and 57.9 % of the them had less than 3 years of clinical experience. 47.2 % of occupational therapy clinics were taking students for clinical education and 65.3 % of total occupational therapists were participating in the clinical education of the students.

Conclusion : The study indicates that the development of a minimum standard for fieldwork education guideline is in an urgent need in order to ensure the quality of occupational therapy service in Korea.

Key Words : Affiliation, Education program, Fieldwork, Occupational therapy